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복음과 진정한 자유 (사 61:1-7)

The Gospel and True Freedom (Is. 61:1-7)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부자연스럽고 마치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건강, 야망,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던 참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바 있고(눅 4:16-19), 인용하여 말씀하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응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 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이 응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진리를 깨닫는 자마다 자유하고,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마다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

모든 염려와 짐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용사, 우리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확인하십니다. 기적 또한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자신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사 61:2).

은혜의 해는 조건 없이 땅을 돌려주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마음껏 풍성하게 넘치도록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를 전파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Republic of Korea is a free democratic state. Are you free now? All people may answer that they are free. Nevertheless, our life is still unnatural and dullness covers us as if we are confined. That is the reason why we are not free from something. Such things as children, health, ambition, anxiety about the future, someone who we do not forgive, and an imperative idea of which we must satisfy someone's expectation, do not make us free.

We must know what the real freedom that we look for and long waited for are.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 (Is 61:1)

This is one of the most famous scriptures from Messiah's prophesy. Jesus quoted this word directly (Luke 4:16-19). After quoting this scripture, Jesus said,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Luke 4:21). What was fulfilled? He gave the Gospel to the poor, healed the brokenhearted, and proclaimed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the suppressed.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John 8:32).

The thing that makes us free is the truth. The truth is Jesus Christ. In other words, Jesus Christ who is truth makes us free. Whoever knows that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realize the truth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to save us will be free, and whoever truly believes this Gospels will experience joy and freedom.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 5:7).

What is the reason why you cast all your anxiety and worry on Him?, because God cares for us. Who is that God? He is Almighty God, a warrior, and God of eternal love. He loves us so much to die on a cross fo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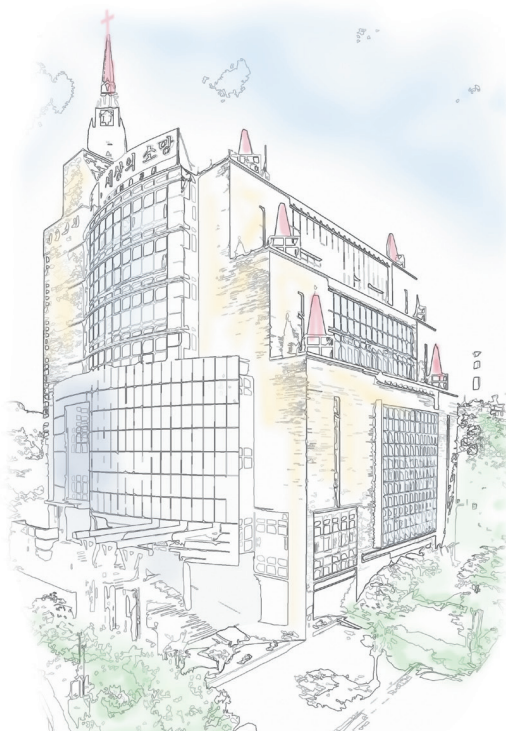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Freedom comes from faith. That is why Jesus emphasizes the faith all the more. Whenever he performed a miracle, he confirmed, “Do you believe this?” The miracle comes from faith too. But even though we have faith, we must do our best. Really, we must believe in God and do our best for ourselves.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m mourn” (Is 61:2).

The year of the Lord's favor means the year of jubilee of which God gives us the earth without condition. God will give his grace to us: those who are unqualified, and those who do not reach the standard, and give his love and mercy, without charge as a gift, fully as much as we like.

By enjoying the freedom in the truth,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people of faith proclaiming the freedo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6 흥해작전 준비 시작되다

주제 :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
기간 : 6.6(월) ~ 6.25(토) 오전 5시

우리교회는 2016년 흥해작전 준비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섬김위원을 발표하였다.

- 주 제 :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합 3:2)
- 기 간 : 6.6(월) ~ 6.25(토) 오전 5시~6시
- 지 도 : 유문건 목사
- 참 모 장 : 양춘경 장로
- 차 장 : 이우진 집사
- 기획참모부(교육위원회)
 - 기획 : 윤명구 집사(부장), 김장섭 집사, 김영희 집사, 노제현 집사, 노창훈 집사, 오윤걸 집사
 - 동원 : 이성우 집사, 강낙훈 집사, 김규태 집사, 강성은 집사, 송용훈 집사
- 예배참모부(예배위원회)
 - 예완식 집사(부장), 황병석 집사, 은기장 집사, 안현식 집사, 박정희 권사, 이종창 집사

- 오승민 집사(찬양), 윤요섭 집사(음향), 최영철3 집사(멀티미디어)
- 동원참모부(교구위원회)
 - 신봉하 집사(부장)
 - 교구1팀(이길재 집사) : 1, 2, 3, 13, 14, 15, 16교구 부교구장, 간사
 - 교구2팀(백승갑 집사) : 4, 5, 6, 7, 8, 9, 10, 11, 12 교구 부교구장, 간사
 - 스테반회(김광옥 집사),
 - 제1권사회(정미연 권사), 제2권사회(이영숙1 권사)
 - 홍보참모부(순례자팀) : 홍일성 장로(부장), 순례자팀
 - 봉사참모부(제1권사회) : 정미연 권사(부장), 전숙향권사, 2016 피택권사.
 - 차량참모부(차량부) : 주동재 장로(부장), 2016 피택집사.

임명

우리교회는 황광 목사의 사임으로 다음과 같이 인사이동 및 부서 임명을 하였다.

- 2, 9, 11, 15교구·새가족위원회·새가족부: 서명철 목사
- 디아스포라부·2권사회: 유문건 목사
- 관리위원회: 박영준 목사
- 1권사회: 조원영 목사
- 소망부, 장학회: 서준권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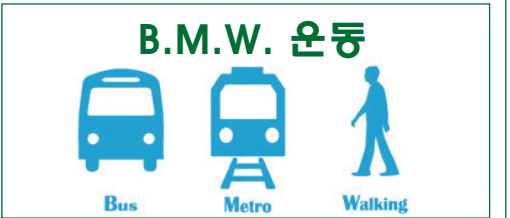
4월 세례자 명단

4월 17일(주) 1, 2, 3부 예배시 거행 된 세례식 세례자 명단(총 32명)은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고상호 김규환 김선민 김재일 남주현 석명근 송정윤 오명숙 이승환 한중수 홍진혁 계 11명
- 입교자 : 김병준 공지성 김은표 김호준 박경은 박하은 서정우 신명철 신지혜 원성현 유시원 조석희 조건희 계 13명
- 개종자 : 안정미 이재혁 최옥경 계 3명
- 유아세례자 : 김지유 박준하 신문경 임지민 최로빈(Robin choe) 계 5명

교구별 체육대회

4교구: 4월 30일(토) 오전 10시 서초 몽마르뜨 공원, 5교구: 4월 30일(토) 오전 9시 과천 청사역 7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여주 바이블랜드에서.



23사단 진중 세례식

4월 30일(토) / 오전 6시 30분 출발

우리교회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 주관으로 오는 4월 30일(토)에 23사단 진중세례식을 거행한다.

당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전도위원회(위원장 : 최광성 장로)는 오늘 찬양예배 시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주관한다.

설교는 황광 목사가 담당하며 인도는 장정화 권사(리브가 전도회장), 기도는 서희숙 권사(하나 전도회장), 성경봉독은 김유경 권사(에스더 전도회장)가 담당한다. 여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크리스찬의 헌금생활

(고 후 9:6-9)

오늘날 헌금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확실한 진리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1. 헌금의 정의

어떤 사람은 연보는 주로 구제할 때 쓰는 용어이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연보와 헌금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은 말 그대로 헌금을, 연보는 헌물과 헌금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씀한다.

레위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금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다. 헌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공적으로 바치는 헌금이 있고 개인적으로 바치는 헌금이 있는데 구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으로 하나씩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4:32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고, 역대상 16:29에서는 “여호와 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나와 있다. 또 출애굽기 36:5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데 그 때에도 헌금을 하였다. 열왕기상 17:10-15에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을 가져왔다고 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므로 헌금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에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과부가 구차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다. 결국 헌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2. 잘못된 헌금관

헌금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을 때 헌금은 맹신 혹은 미신으로 끌려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하여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성도는 명예속에 근거한 헌금을 조심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헌금을 목사나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위선적인 헌금이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헌금과 신앙을 동일시하거나 기복사상에 기초하여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액수와 받을 축복은 전혀 상관 없는 것이다.

마가복음 12:41에서 한 과부가 엽전 두 렵돈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주님이 그녀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엽전 두 렵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얼마를 바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치고 얼마가 남았느냐가 엽전 두 렵돈의 교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무적인 헌금도 조심해야 한다. 의무적인 헌금은 종교적인 공포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헌금이다.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희생과 감사가 있는 헌금, 바로 희생의 제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바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스럽게 바쳐진 헌금을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교회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 주 계속)

비전(vision)을 품은 청년들!



2016 청년1-2부를 이끄는 지체들

기성세대들은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며 많은 걱정을 합니다. 서울교회 어른 세대는 서울교회 젊은 이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설립과 건축 등의 굵직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선배들에 비해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순례자는 지난 4월부터 목요집회를 시작한 청년부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년부 목요집회가 지난 4월7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는 청년들이 찬양과 기도 모임을, 그것도 평일에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요집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신다면?

- 지난 2월에 저희 청년부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후 수련회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며 여러 생각들과 의견들을 나누고 종합하던 중,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평일 집회 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평소 이런 자리를 사모하였음에도 갈 곳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의견들과 함께 과반수가 훌쩍 넘는 지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로 또 청년의 때에 맞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만나 목요집회를 개설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첫 목요집회가 지난 7일에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고, 어떤 순서로 진행됐었나요?

- 집회 첫 날, 목회자를 비롯하여 청·장년 69명이 참석하였고, 함께하는 모두가 조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서준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임원, 선생님, 찬양인도자 등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했을 텐데요, 임원들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 처음으로 평일 청년부 집회가 개설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살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목소리와 악기로 주일 찬양뿐만 아니라 집회를 위한 평일 찬양 또한 준비해야 하는 찬양팀이 잘 꾸러질 수 있기를, 찬양팀원들 모두의 시간과 그 외의 여건들이 잘 맞아서 준비하고 또 찬양드릴 때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평소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평일 저녁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의 발걸음이 바르게 집회장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순례자, 청년부 소식지,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홍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서울교회 역사에서 토요 집회나 성경공부는 있었던 적이 있는데 평일 청년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청년부 목요집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하는지 포부를 밝혀주신다면?

- 목요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지체들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들을 주변의 신앙인들과 나누고 함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목요집회를 통해 즐겁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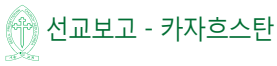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청년들 중에 아직 목요집회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초대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신다면?

-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 4:2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늘 기뻐 받으십니다. 현재 청년부를 참석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모두 "매월 첫 주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501호"에서 만나 뵙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찾아주시기를, 문 두드려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집회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터뷰, 정리 : 노창훈 집사 (편집부)





전도에 돌파(break through)가 일어나도록!



10) 자녀들을 위해
 - 이하나 (30세/ 초등교사로 근무)와 이혜나(29세/ 목포효성요양병원근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 이평화 (26세/외대4학년) 금년 상반기 졸업예정, 진로를 하나님에 인도해주시고 은혜주시도록
 11)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
 현지인 청년들이 미래의 카작의 영적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 이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이은준·강혜정선교사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에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에 돌파(break through)가 일어나도록 카자흐스탄 타라즈 미르교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 1) 미르교회에 기도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타라즈(45만)와 잠불주(108만)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 이 땅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 3) 고아원 사역이 열리도록
 현재 한 할머니(그리스인/ 발레티나/60세)와 사는 아주 가난한 아이들(7명)을 우리가 돌보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현재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 4) 가정교회가 잘 정착되고 증가하며 가정교회 안에 성령의 강한 일하심으로 전도 육성 파송이 역동

- 적으로 일어나도록
- 5) 카작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 6) 4-14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 7) 살리갓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이제 쿠아느스 부인 아이만이 남편과 살리갓이 교회에 나가는것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심방을 가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해에 어미소 한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를 사 주었습니다 어미소가 새끼를 낳아 이 가정에 경제적인 부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축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추가로 송아지를 사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믿음에 자라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8) 위트교회를 위해
 위트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현지인 리더 바클잔이 성령충만하여 전도하고 심방하며 양들을 충성스럽게 양육할 수 있도록
 - 9) 알콜중독자들에게 식사제공하는 일을 통해 알콜중독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역이 일어나도록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8일(화) 새로운 한국을 위한국민운동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30일(토) 북핵폐기 천만인서명운동 4차 회의를 소집한다.
- 사임 : 황광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 됨에 따라 4월 29일자로 사임한다.
- 작곡발표회: 11교구 박선영 성도, ACL(아시아작곡가연맹)초청 작곡발표회, 4월 28일(목) 오후 7시30분 일신홀(옛 단국대 정문쪽 대로변)
- 주일식당방사 : 뽕뽕 전도회(4. 24) 루디아·도르가 전도회(5.1)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2016년 5월 1일 어린이주일 서울교회로 모여라!!

신나는 레크레이션! 맛있는 파티! 행복한 선물!

유년부	1-3학년	7층 701호	9시-10시 30분
초등부	4-6학년	6층 601호	9시-10시 30분
유초등연합 2부	1-6학년	7층 701호	11시 20분-12시 40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02-558-1106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다음 주는 '어린이주일'로 유년부, 초등부, 유초등연합2부는 『친구 초청 잔치』를 엽니다.
 2016년 어린이주일에 많은 어린이들이 초청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아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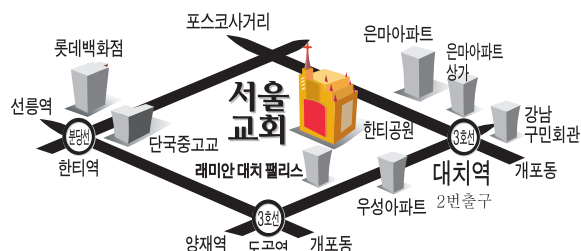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4월 30일(토) 23사단 진중세례식을 통해 군 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2. 4~5월에 모이는 교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각 다락방과 교구가 하나되고 교회가 하나될 수 있도록
3. 5월 15일(주)에 있게 될 항존직 선거 일정이 은혜 중에 잘 준비되어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예배	오후 2시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